

새로움이 새로움을 만나다

23학번 새내기들의 신생 동아리 활동 이야기

새내기들이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동아리 활동까지 병행하는 그들의 열정과 '새로운 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녹여내 보고자 한다. 이렇게 교내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을 응원하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활기를 복돋아 주고자한다.

강현석 수습기자 fcnx000@naver.com

다들



'다들' 부원들이 짝을 지어 마사지 실습을 하고 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활동 중인 '다들' 동아리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학과 신입생 23학번 썰매부 김민지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바디 액션 테라피와 스포츠 마사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속해있는 만큼 많은 학우분이 관심 가지고 계신 동아리입니다. 원래 화요일 하루만 활동하는 일정이었는데 인원이 많아져, 목요일도 추가 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해당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입학 직후에 아는 선배님의 홍보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같은 썰매부 선배가 회장이셔서 자세한 활동 내용과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한,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며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는 심한 부상을 겪은 적이 있어요. 현재도 보강 운동을 따로 하는 중인데, 평소 근육이 뭉쳐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가동범위가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또한 운동을 할 때, 몸의 조직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동아리를 통해 선수로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해당 동아리가 가지는 다른 동아리와의 차별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신생 동아리 '다들'은 취업 연계 동

아리이면서 다른 동아리와 달리 육조영 교수님과 주윤숙 교수님께서 직접 저희를 다 지도해주세요. 동아리 활동 이전에는 혼자 유튜브를 활용하여 저에게 맞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찾아가며 보강을 했는데, 동아리 활동은 파트너도 있고 교수님께 이론 수업도 들을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생각해요.

Q. 어떤 분들께 해당 동아리를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A. 저처럼 재활 및 마사지에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께 무조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 선수분들도 직접 자신의 몸에 대해 공부하고 부족한 점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강해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같이 활동하게 될 신입 부원들이나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동아리는 기존 학교 수업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서로 부족한 부분이나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가며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다



'담다' 부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학과 23학번 신입생 도약부 김민지입니다. 현재 사진 동아리 '담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동아리 '담다'는 이번 연도에 신설된 사진 동아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모델 및 사진작가 역할 모두 경험해볼 수 있어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는 스포츠 위주의 동아리가 많은데, 체육 전공자라도 색다른 취미를 가진 학우들과 같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개인 카메라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빌려주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간단한 밝기 조절과 구도, 조명 위치도 바뀌가며 찍어볼 수 있어, 아예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와서 편하게 찍어보실 수 있어요.

Q. 사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외에도 이전에 했던 관련 경험이 있을까요?

A. 개인적으로 자연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 사진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따로 만들어 활동 중이에요. 현역 선수이다 보니 경기 땀 사진을 찍어주는 작가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요청드릴 정도로 평소에도 사진에 관심이 많아요. (웃음)

이렇게 동아리 가입 이전엔 혼자만의 취미생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학과 선배님들께서 동아리를 만드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아리 정식 개설 전부터 가입 의사를 밝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체육학과 훈련 일정, 학교 수업까지 동아리 활동과 병행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A. 동아리가 월, 수, 금 8시 30분에서 40분에 마치는데 체육학과 기숙사 통금 시간이 있어 회식 같은 모임은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새로 오신 분들

이나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취미를 공유하며 친해지는 것이 좋고 사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 의미 있어요. 그래서 훈련 및 여러 일정으로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움직이지만 동아리 시간은 항상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다가와요. 대학에 입학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훈련 및 기숙사 통금 시간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Q. 활동 장소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단 평일 월, 수, 금으로 동아리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 지하에 스튜디오처럼 마련된 동아리 방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줘요. 이제 날이 풀리면서 꽃이 피고 있어서 공원과 같이 위치를 정해서 출사를 나갈 예정이에요.

Q. 앞으로 새롭게 가입하게 될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평소 사진 쪽에 관심이 있었거나 혼자라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곧 출사도 나가 평소에는 쉽게 가지 못할 여러 명소에서 인생 사진들을 남기며 나의 20대를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추후에는 봉사활동도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장수 사진 및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드릴 계획도 있어 정말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스키



차유진 학우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지도학과 23학번 스포츠 클라이밍 전공 차유진이라고 합니다.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다이스키'라는 일본어가 동아리의 이름인데 '다이스키'가 우리말로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일본어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배우고 일본에 여러 체육대학교와 문화 교류 및 회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Q.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이번학기 '일본어'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저희 학과 선배님께서 일본어 관련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추천해주셨어요. 그리고 평소 일본어와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에 직접 가는 활동도 있다 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Q. 일본어 말고도 다른 언어에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A. 영어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가 말씀드렸듯 평소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노래에 관심이 많아 일본어가 가장 끌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가 쉽다고 느껴져요. 어순이 한국말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일본 콘텐츠만의 감성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어를 듣는 건 익숙한데, 말을 직접 하거나 쓰는 건 어

려워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신청해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관심을 잠깐 가지다 안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웃음)

Q. 동아리 활동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A.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하며 학교생활을 온전히 즐기기는 어렵지만 수업 및 각종 모임을 거치며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며, 경기지도학과 내 구성 돼 있는 종목을 모두 한 번씩 체험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Q. 앞으로 새롭게 가입하게 될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가 아무래도 언어 공부를 하는 동아리이다 보니 조금 딱딱하게 보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가볍게 일본 여행 준비한다 생각하고 부담 없이 가입해서 같이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일본어 공부는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막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기자생각

2023년도 신설된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23학번 새내기 학우들을 인터뷰해 보았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학과는 아니지만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힘든 일정을 병행하며 뚜렷한 목표와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그들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 이러한 열정이 기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 면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전달되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